

주현절 / 임직감사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EPIPHANY SUNDAY

주후 2022년 1월 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새 21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6 번 취임식 (Inauguration)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Mark) 1:15-20	임소영 집사
찬 양 Anthem	“예배합니다”	찬양대
설 교 Sermon	“부르시니 따라가니라” (Calling and Following)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의 피난처 예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안수임직식 Ordination/Installation	(안수/임직 순서지 참조)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별연주:윤혜원 자매)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46 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새 21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더 앞세웠으며,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오직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11-12, 골 3: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좃으니라” (한글개역 **막1:17-18**)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NIV **Mark 1:17-1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9 (주일)	1/10 (월)	1/11 (화)	1/12 (수)	1/13 (목)	1/14 (금)	1/15 (토)
	창9,10	창11	창12	창13	창14	창15	창16
본문	마9	마10	마11	마12	마13	마14	마15
	행9	행10	행11	행12	행13	행14	행15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12 오후7:30)	“잇사갈 사람 돌라와 길르앗 사람 야일” (삿10:1-5)
토요 새벽기도회 (1/15 오전6:30)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시65:1-13)

지난 주일(1/2) 말씀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 (1) –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나” (막 1:12-15)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핵심은 (다른 아난)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처음)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을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정의하며, (이는) 예수님의 오심(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장차) 예수님의 다시 오심(재림)으로 인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는 과연 누구의 통치(지배, 영향력)를 받으며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즉,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물질(돈)의 영향력 아래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는 1) 지금 어떤 인생의 때를 지나고 있는지 분별해야 하고, 또한 2)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3)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앎(지식)이, 우리의 삶(일상)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기에,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설/교/ 메/모